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호 [루계 제23344호] 주체100(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전자악단의 예술인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정초부터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

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최희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 당 책임비서 문경덕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원홍동지, 리병철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전자악단은 이날 공연무대에 전자기악중주 《축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녀성3중창 《매혹과 흥모》, 남성5중창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전자기악중주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즐거움 무도곡》, 녀성독창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합창 《천만이

총곡란 되리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수명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부를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의 심장

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총성의 대하 마냥 설레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지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자악단에 예술인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가지고 통속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이 조직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

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고동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려 군인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 일으킴으로써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예술창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협주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전자악단을 몸소 무어주시고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창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1 계렬건축공사 완공, 부분별시운전 시작

흥남 가스 화대상 공사장에서

올해공동사설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밑불이 될 불같은 열망을 안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1계렬공정의 건축공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설비들과 장치물제작 및 조립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부분별시운전에 들어가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는 물전해지구에 이어 수백개의 구조물들과 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가스화 지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래, 김철의 실천력으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기개와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명을 닦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나가고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도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의 모든 전투장면에 혁신과 비약의 폭풍이 불아치게 하겠다. 도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시, 군들에서 달려오는 기동예술팀대원들이 울리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모든 전투장면에 힘있게 메아리치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보내는 지원물자들이 가스화대상설비생산에 펼쳐나선 기술자들과 전투원

들의 사기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렸다면 통성의 로동계급은 <련합부분, 련판단위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대상 설비생산에 위한 전투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울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통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들어가 기술자, 종업원들과 과학을 함께 하면서 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혁신의 불길은 가스화대상 공사가 벌어지고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세차게 타고오고 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온 나라가 흥남을 지켜보고있다고 하면서 가스화대상공사가 벌어지는 전투장에 나가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보수분사업소를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 단위들에서 달려온 기술자들과 전투원들은 련연이 없는 추위가 계속되지만 전 인민생활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열의와 의지를 안고 달려진 설비들과 장치물조립전투를 끝까지 완수해나가고 있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과 전투원들도 가스화대상공사가 하루빨리 끝나야 인민생활대고조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싸우고 있는 한편을 잊지 않고 있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고 하면서 공사가 벌어진 첫시작부터 언제나 투쟁전투의 앞장에서 기술자들과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이곳 기술자들과 전투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방대하고 아름다운 가스발생로제프의 장치물조립과 축로전투를 성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공동사설과 김철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를 피우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이 총동원된 불길울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재원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 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어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종합적인 자료에 의하면 단천지구광업총국 아래 여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해 첫 전투부터 생산성과를 확대하며 생산능력 투쟁을 드세게 벌리고 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이 항구의 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이 세차게 타고오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몇몇동안에 여러차례 단천지구의 광산,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기술개진을 힘있게 다그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단천지구의 광산,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동원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도당위원회와 단천지구광업총국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광산, 공장, 기업소당 조직들에서는 올해공동사설과 김철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내용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과 여러 광산,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은 생산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면서 중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새해 첫 전투

부터 매일 계획을 1.2배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다. 금광광산과 검덕광, 로은광산, 남평광산, 청년광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 광장에서 중산돌격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청년영웅광산과 봉양광산, 백마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부단치는 난관을 이악하게 뚫고나가면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울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대청년영웅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 뜨거운 한마음으로 광석생산과 크렁카생산을 분별있게 다그치고 있다. 통양광산과 백마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전담이 좋은 재물장들을 너그러이 마련해놓고 질 좋은 광석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단천마그네사광산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은 마그네사크렁카광산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여러가지 지표의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내화물광공장과 단천제련소,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도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매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올해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

서해벌방농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준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서해벌방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차비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종합적인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농촌들에서 이미 천수백만의 거름을 생산해놓고 매일 수십만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다. 이 성과는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올림하여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열의를 펼쳐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실천력

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련일 거름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제련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가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매일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다. 연안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서 이미 수십만의 거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양, 신천군들에서도 거름원천이 제한되어있는 실정에 맞게 니란케기와 개바닥파기, 진거름실어들이기에 열의를 집중하여 매일 많은 거름을 생산해내고 있다. 올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일고있는 속에 도적으로 매일 많은 거름이 생산되어 포진으로 나가고 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총동원된 불길 높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열두살림리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투를 지켜왔다는 자각을 안고 펼쳐나간 지만해보다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진에 실어낼 높은 목표밑에 련일 실적을 올리고 있다. 문덕, 숙천, 평원군들에서 새해에 들어와 첫 열흘동안에 수만t의 니란을 캐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동시에 내밀고 있다. 다른 군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거름생산이 곧 쌀생산이라고 하면서 거름생산을 내밀고 있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농사차비를 착실하고 하고 있다. 룡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평면한 거름실어내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안의 농촌들에서 포전에 정보당 수십백t의 거름을 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요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거름이 포전으로 실려나가는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선천군과 운진군, 박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 수천만t의 거름을 생산하여 매일 많은 거름을 실어내고 있다.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매일 수십만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고있는 서해벌방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높은 열의로 하여 농사차비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정일 찍음

